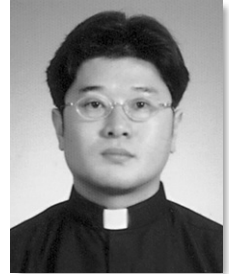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힘내세요.

서정만 이시도로 신부
서재성당 주임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악마의 자식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이고, 수확은 마지막 날이고, 곳간은 천국이며, 불은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실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밭입니까, 가라집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내가 밭이라고 믿기에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지. 너는 가라지다.> <왜 제가 가라지입니까?> <너에게서 이삭이 맺지 않잖아.> <이삭이 제게서 생기면 저는 밭이 됩니까?> <그래.>

생긴 건 밭인데, 이삭이 맺지 않는다고 가라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고 무엇이라고 판단하든 그것은 그분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정말로 저를 똑바로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의 한 말씀이 진짜입니다. 저는 이삭을 맺는 밭이 되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비교를 잘못 했던 것입니다. 저의 영성 생활을 교우 분들과 비교를 하니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리지외의 테레사 수녀님,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님, 인도 캘거타의 테레사 수녀님, 중국 지하교회의 신부님, 시간도 십일조를 하시는 신부님,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성사를 보시는 신부님, 이 분들과 비교하면 정말로 저는 가라지가 맞습니다.

영신 수련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기도가 짧은 화살기도와 짧은 반복 기도입니다. 잘 때도 기도해야 하니까 늘 예수님을 의식하려고 애쓰고, 일 할 때도 기도해야 하니까 짧은 기도를 반복하고, 종래에는 당신이 스스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늘 깨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처럼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악마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아직 늘 깨어 기도 하는 법을 깨우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저는 가라지가 많은 밭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라는 이삭이 있으니 어쩌면 예수님이 <너는 밭이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됩니까?> 여러분이 모두 밭이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들에서 농사짓는 교우 분들, 자식농사 짓는 우리 교우 분들, 더운 여름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대구주보

생명의말씀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13,30 참조)

제1독서 : 지혜12,13,16-19 제2독서 : 로마8,26-27 복음 : 마태13,24-43.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땅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열여섯 번째 맞이하는 농민주일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일구고, 맡겨주신 못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농민주일은 생명의 양식을 가꾸며 창조의 모습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땅의 모든 소출을 공평하게 나누어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완성하도록 복과 소명을 주셨지만, 현실은 하느님의 뜻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아로 고통 받는 세계 인구가 10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최근 잦은 기상 이변과 이에 따른 식량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정책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곡물 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 복합 기업들이 식량을 독점하고 무기화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과 식량 사정도 우려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지의 면적과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농사지을 땅도, 사람도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26.7% 수준의 상당히 낮은 식량 자급률입니다. 당장 식량 전쟁이 발생해 자급자족해야 한다면, 국민의 4분의 3은 곡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도 기상 이변으로 모든 작물에 걸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구제역 파동과 정부의 개방 농업정책, 그리고 농지를 빼앗은 4대강 사업 등으로 우리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산업화로 폐쇄해진 농촌의 사정을 우려하며 농업이 안정되려면 반드시 품위 있고 안락한 가정생활에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어머니요 스승」, 143항), 현 교황님은 ‘2010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 “소농(小農)들과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적절한 농촌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10항)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은 ‘농부이신 하느님(요한 15,1)’의 뜻에 따라 오늘날 식량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내는 성직(聖職)을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농민주일을 맞아 다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촌이 살아야만 도시에서의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농촌 생활 공동체의 농민들이 안전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도시 분당 공동체 신자들과 나누며 서로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도·농 공동체 운동’이야말로, 식량 위기와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먹을거리 오염과 불신으로 얼룩진 상황을 극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복음적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나눔과 섬김이 커져 나갈 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고 하느님께서 주신 창조의 복과 생명을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농민들과 도시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7월 17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 용 훈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입당성가

2 주 하나님 크시도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파견성가

6 찬미노래 부르며

영성의향기

::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모습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제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자리에 올라앉아 보겠다는 생각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조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사상들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성스럽게 되고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입어라”(에페 4,22)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은혜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뽑아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사에 앞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지혜

두 가지 도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지녀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표시를 지닌 두 가지의 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모상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상을 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날인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날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난과 일치하여 기꺼이 죽을 자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의 《하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

모임 / 행사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7.18(월) 14:00, 대구대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교구 100주년 기념 전시회 작품집 판매합니다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7.25(월) 20:30, 요안나 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성소 / 파정

교구 하계 예비신학생 피정

문의: 각 본당 사무실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7.20(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섭리기도모임

일시: 7.24(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6)645-8851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 ME주말

대구289차: 7.29(금) 19:00 ~ 31(일) 18:00
대구290차: 8.5(금) 19:00 ~ 7(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여름피정

1차: 8.2(화)~4(목) 중 · 고등부
2차: 8.5(금)~7(일) 35세 미만 일반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이 리디아 수녀, (016)570-0939

젊은이 하계 성령 세미나

일시: 8.5(금)~7(일), 월막 요한피정의집
문의: (054)954-0951 / (010)2864-3156

젊은이 슈발리에 축제

주제: '?!' (너어디?, 저여기!)
일시: 8.13(토) 16:00 ~ 15(월) 15: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본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남녀, 회비: 6만원
문의: 조 펠라카니아 수녀, (010)9330-3104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255-4847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7.18(월)~8.12(금)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남녀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3번출구)

2011 중등교원 사도직 협의회 하계연수

일시: 7.23(토) 15:00~24(일) 11:00
장소: 김천 힐링라이프
대상: 신자 중 · 고등학교 교사 누구나
※자세한 내용은 중형 카페를 참조바랍니다.
(http://cafe.daum.net/daeguapostle)

조이플 스테이 (18~20차)

내용: 기쁨의 샘을 마셔라
일시: 7.23(토)~24(일)/30(토)~31(일), 8.6(토)~7(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구관구
대상: 미혼여성 (회비없음, 미사준비)
문의: (010)2649-204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목소리를 바꿔라: 8.3(수) 19:30
초급영어: 8.11(금) 13:00
인간관계 대화법: 8.4(금) 14:00
성가반주 하모니카: 9.8(목) 10:30
문의 및 신청: 254-6115

성 바오로 안나의 집(실비양로원)

대상: 만65세 ~ 80세 미만 어르신
생활비: 월40만2천원 (보조금 5백만원)
주관: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
문의: (054)382-1634 / (010)7191-1634

여대생의 뜰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무관, 숙식)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http://www.rcm1892.net)

안내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창연, 서희숙, 조보성(바오로)

천주성삼병원 관절센터, 재활의학센터 개설

분야: 인공관절, 관절경, 척추관절수술
(전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장,
늘열린성모병원장 안혁수 전문의 초빙)
문의: (010)9356-0877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 월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7월 1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7월 19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매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리노류마내과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내과입니다.
원장 김성동(리노)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상가 4층
www.linoclinic.com Tel 248-6565

KJ KIM YOUNG JOO GOLF
LYLE & SCOTT GOLF

만촌점

만촌네거리
이크르타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임혜경 (율리아) T. 744-9226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예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매일IT가전

김홍은(요셉) T: 604-3300
유통단지 전자관 1층 239호
생활가전, TV, 선풍기, 에어컨, 냉방기
안마의자, 찜질기, 안마기, 온열매트

강북 행복을 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 323-2875 / 323-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Jeep 수성점

미국 정통 아메리칸 빈티지
캐쥬얼 Jeep
남부 정류장 방면 수성이크로 타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T. 744-9227
대표 이용순 (수산나)